

# 개학 코 앞...불안한 단체급식 '골머리'

## 대학 도서관 지역민 이용 어렵다

광주 교육단체 현황 분석...“개방 문턱 낮춰야”

### 아크릴 칸막이·시차 배식 등 근본적 한계 식중독·영양 불균형 등 부작용 우려 제기

4월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일선 학교들이 단체급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4월 개학을 앞두고 광주 292개, 전남 827개 초·중·고(특수학교 포함)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단체급식 거리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전체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등의 중심으로 최적의 거리

유지 방안 모색에 나섰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장 보편화된 투명 아크릴 칸막이 설치, 학년별 시간차 배식,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식 형태로 한 자리씩 띄어앉기, 특별교실이나 빈 교실 활용, 간편식 제공 등이다.

그러나 대다수 대책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 차단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오히려 식중독이나 영양 불균형 등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소지마저 안고 있다.

우선 아크릴 칸막이의 경우 투명하고 공간 중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외부 충격에 약해 깨지기 쉽고 대화 후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어 그때그때 소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바로바로 소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사업비 마련에 수시 소독, 인력 확보까지 삼박자가 맞아야만 가능하다”며 “실효성은 기대보다 낮고, 위생성은 생각보다 높아 우선순위에 두진 않겠다”고 말했다.

학년별 시간차 배식의 경우 3~4 교대가 불가피해 최소 2시간 이상의 급식시간이 필요하고, 급식실이 비좁은 학교에서는 업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급식은 2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는 보건 당국의 가이드라인과도 충돌될 수 있다. 급식 시간 변경에 따른 등·하교, 수업·휴식시간 변

경도 속제다.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배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품식 등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번엔 영양량이 걸림돌이다.

학교급식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정해진 영양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컨대 칼로리가 높은 자장면이 제공되는 날에는 다른 메뉴는 아예 구성하기조차 어렵다. 맛난 음식을 내놓고 싶어도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영양량을 어길 경우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납품업체와의 계약 변경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 또한 높다.

교육청 급식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뒤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 긴장감 속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하지만 특별한, 그러면서도 통일화된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지역 17개 대학 도서관이 지역민들이 이용하기에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광주 교육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 17개 대학 도서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선대와 조선간호대, 폴리텍대, 광주과기원 등 4개 대학만이 지역민에게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선대는 지난해 1년 동안 주민에게 이용증을 가장 많이 발급(2,501명)한 대학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영대와 조선이공대, 남부대, 기독간호대 등 4개 대학은 주민들의 이용을 원천 금지했다.

나머지 전남대와 광주대, 송원대, 호남대, 호신대, 광주교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 동강대 등 9개 대학은 예치금을 납부하면 이용증을 발급했다.

이들 대학 가운데 예치 금액은 호남대가 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보건대와 광주여대가 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동강대는 도시를 대출할 때 도서 금액만큼 예치금을 받고 도시를 반납하면 반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송원대와 호신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고 학교 재산으로 귀속시켰다.

도서 대출량이 가장 많은 전남대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주민의 도서 미반납 비율은 교직원·학생에 비해 낮았다.

호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 역시 주민 미반납률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시민모임 측은 “정보는 공개되고 통합 필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도서관도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대부분 대학이 국가장학금과 국고보조금에 기대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대학의 정보는 시민들에게 더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 광주경찰-지자체, 다중이용시설 점검

### 내달 5일까지 방역적 치안 중점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시와 함께 오는 4월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청과 지방청 합동점검반 외에도 경찰서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합동점검반을 구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적 치안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밀집된 장소에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인 대형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이다.

유흥시설 등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1~2m 간격 유지, 손 소독제 비치, 출입자 명단(성명·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경찰·지자체 합동점검팀(55명)은 고위험 밀접 접촉 가능업소인 클럽 등 15개 업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예방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청소년 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김영민 기자



빵 드시고 힘내세요 24일 오전 광주 퇴움장애인직업재활센터 관계자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시청과 빛고을전남대 병원에 전달할 빵 500여개를 포장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GIST, 원도필름형 투명전지 개발 도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팀이 국가적 난제인 ‘제로에너지 빌딩’을 위한 원도필름형 투명태양전지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4일 GIST에 따르면 신소재공학부 이광희 교수가 제로에너지 빌딩을 위한 원도필름형 투명태양전지 소자 및 모듈 개발에 착수했다.

국가가 지정된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의 난제 중 하나인 필름형 투명태양전지 연구는 고효율 또는 반투명 특성을 고려한 가시광 영역의 높은 투과도 달성에만 집중돼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존의 필름형 투명태양전지에 원도 필름의 기능을 추가해 건물이나 자동차 유리창에 적용하면, 에너지원 기능뿐 아

니라 자외선 차단과 단열이 모두 가능한 필름형 태양전지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투명태양전지의 기능과 냉·난방 소비전력을 절약해주는 원도(또는 틴팅) 필름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혁신적인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소재 개발을 목표로 한다.

또 플렉서블 투명전극 기반과 용액공정이 가능한 유기물질들을 기반으로 한 저가 인쇄 공정을 통해 100cm<sup>2</sup> 크기의 모듈을 개발하고 원도필름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상·하부 투명전극과 구성층들을 포함하는 원도필름형 투명태양전지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기철 기자

## 광주·전남병무청, 상근예비역 입영희망신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 대학(원)에 편·입학한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중 당초 결정된 입영일자에 그대로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을 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입영 대기 중인 사람 중 올해 대학(원)에 편·입학한 사람들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을 오는 31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당초 결정된 입영일자는 자동 재학연기 처리된다. 또 상근예비역 선발 또한 취소된다.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찬 기자

### “술 좀 그만 마셔”



○...대낮부터 정 자에서 술을 마신다며 이웃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서행.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8)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께 서구 화정동 한 공원 정자에

서 술을 마시던 이웃인 B씨(60)의 뺨을 수회 때린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일요일이면 낮에 술을 마실 수도 있지 그렇다고 이웃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김종찬 기자

## 상가 매매 상무지구

**① 치평동 중심유통상가 6층 [80평]**  
(유흥주점, 카페, 노래방 적합)

-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 감정가시세 5억원
- 매매가 2억5천만원

**② 치평동 중심유통상가 7층 [60평]**  
(유흥주점, 카페, 노래방적합)

-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 감정가시세 3억원
- 매매가 1억2천만원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 평**  
- 매매가 7천8백만원(임대완료-보300,월44만원)

**② 용봉동 원룸 매매 [룸15개, 주택1]**  
- 매매가 6억9천만원

**③ 장성토지 매매 1080평**  
(1,080평 6억원, 분할300평 2억)

010-6670-9800

## 장성토지 [급매]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장성댐사이)  
장성호 개발예정  
⇒ 국도도로 12m접(앞면30m)

- 1,000평 매매시세 10억  
↳ 급매가 6억 (용자 3억 가능)
- 300평분할가능 → 급매가 2억원, (용자1억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

---

■ 토지 물건 추천

① 장성읍 용강리 국도변접점(760평) → 매매가 8천5백만	⑤ 장성 장성읍 덕진리(1,243평) → 1억6천1백만원
② 장성 아은리(코너) 664평 → 3억5천만원	⑥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 6억5천만
③ 장성 아은리(식당) 182평 → 5억5천만원	⑦ 담양읍메타세퀘아도로점(1470평) → 매매가 8억2천만
④ 장성 아은리(답) 379평 → 1억1천3백	⑧ 광주서구서창(197평) 시청에서 20분거리 → 매매가 5억9천만

## 경매교육 [기초반·특수반]

- ①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① 기초이론 + 실전
- ② 중급 실전반**  
① 중급이론 + 실전
- ③ 고급 특수반 모집**
- ④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테디

이제 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경매투자 연30%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시 연20% 가능

■ 추천물건

- ① 장성 남면 녹진리 4,620평 → 매매26억원
- ② 광산구 도산동 2층 구분건물 건물63.5평 → 2억5천7백만원
- ③ 서구 양동 주택 29평(건물) → 4천6백4십만원

010-4667-9820  
062-382-5500